6) 순천공립고등여학교

순천공립고등여학교는 순천농업학교(1935년), 순천공립중학교(1938년)와 마찬가지로 김종익의 유지에 의한 희사금으로 1940년 3월 28일 4년제로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4월 28일 개교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학제가 적용되었다. 순천지역의 여자중등학교는 매산여학교(1921년)가 효시이다.

전라남도 내의 공립 인문계 여학교 설립을 살펴보면 1921년에는 일본인을 위한 목포고등여학교가 개교하였고, 1923년에는 광주고등여학교가, 1927년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1940년에 이르러 순천지역에 공립여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 특히 목포와 비교하면 상당히 늦었음을 알 수 있다.

고등여학교 규정 제1조에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베풀고 특히 국민도덕의 함양, 부덕의 육성에 힘쓰며, 현모양처로서의 자질을 구유함으로써 충량하고 순한 황국여성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연한은 5년, 4년, 혹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등 그들의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립고등여학교의 교과목은 수신・공민과・교육・국어・조선어・역사・지리・외국어・수학・이과・실업・도화・가사・재봉・음악・체조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어는 4년 동안에 평균 주당 시수가 6.5시간인 반면 조선어는 1.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형식적인 교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봉 및 체조의 주당 시수가 다른 교과보다 많은 것은 한국여성의 피와 땀을 강요한 일제의 전시교육체제에 알맞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